

# 양동시장·동명동 뜬다... 광주·전남 상권 육성 시동

광주 100년 전통의 양동시장과 동명동의 감성 카페거리, 남도 음식문화의 중심지인 강진 중앙로, 우주산업 도시 고흥의 특색을 담은 골목상권이 정부 지원을 받판 삼아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관광과 문화, 미식 콘텐츠를 결합한 지역 대표 상권들이 잇따라 국가 육성사업에 선정되면서 광주·전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상권 육성사업'과 '백년시장 육성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고유의 문화와 관광자원, 전통시장, 로컬 창업 생태계를 결합해 수도권에 집중된 소비와 관광 흐름을 지방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올해는 글로벌상권 6곳, 로컬테마상권 10곳, 유망골목상권 50곳, 백년시장 10곳을 선정해 지역경제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

광주에서는 동구 동명동 상권이 전국 6개 글로벌상권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 글로벌상권은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대표 상권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선정 지역에는 2년간 최대 5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동명동 상권은 독립서점과 편집술, 개성 있는 카페와 공방 등이 밀집한 광주의 대표 청년문화 상권이다. '동리단길'로 불리기도 하는 이곳은 젊은 층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로컬 브랜드와 창업기업들이 상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중기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면세거



'양동통맥축제'가 진행된 양동전통시장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동명동 카페거리 일대에서 진행된 '동명커피산책'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 중기부 공모, 양동시장 '백년시장' 선정·동명동 '글로벌상권' 지정 사업비 지원 받아 강진 중앙로 '로컬테마상권' 이름 올려...관광·문화·미식콘텐츠 결합 지역경제 '활력'

리 조성하고 글로벌 관광 플랫폼 연계 홍보, 외국인 친화형 서비스 구축 등을 통해 동명동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관광상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양동시장은 전국 10개 백년시장에 포함됐다. 백년시장은 70년 이상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며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간직한 전통시장을 지역 대표 브랜드 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선정 시장에는 2년간 최대 30억원이 지원된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양동시장은 광주 최대 규모 전통시장으로 농수산물과 건어물, 의류, 생활용품 등이 거래되는 광주의 상징적인 시장이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예술의 거리 등 문화예술 자원과 연계성이 높아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앞으로 시장 육성을 활용한 투프탑 문화공간 조성하고 지역 축제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 구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강진군 중앙로 상권이 로컬테마상권에 선정됐다. 로컬테마상권은 지역의 미식·문화유산·체험활동 등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 체험형 소비 공간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강진 중앙로 상권은 남도 한정식과 지역 먹거리 문화를 기반으로 한 미식형 상권으로 평가받아 선정됐으며, 향후 2년간 최대 4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특화상품 개발과 상권 브랜딩, 관광 프로그램 구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고흥군에서는 고흥우주인브루어리거리 상권이 유망골목상권에 이름을 올렸다. 유망골목상권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로컬 상권에 브랜드 개발과 공동 마케팅, 특화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우주발사체 산업과 관광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고흥의 특색 있는 상권이 정부 지원을 확보하면서 지역 관광산업과 상권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다.

이번 선정으로 광주·전남은 청년문화 상권과 전통시장, 미식관광 상권, 골목상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지원을 확보하게 됐다. 지역 상권을 단순 소비공간

이 아닌 관광·문화·체험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물리면서 체류형 관광객 증가와 소비 활성화, 로컬 창업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 경제는 동명동과 양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광주 도심 관광벨트 구축과 함께 강진·고흥의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가 결합될 경우 광주·전남 전역으로 관광 수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 고유의 문화와 역사, 음식, 관광자원을 활용한 상권 육성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 모두의창업, 2기부터 '다면평가'로 선정 폭 넓힌다

선발 규모 5000명→1만명 확대...AI 검증도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 프로그램 '모두의 창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모두의 창업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창업 인제 육성 플랫폼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창업 기업을 선발·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수 창업 기관과 선배 창업가 등이 직접 창업자를 발굴하고 멘토링부터 사업까지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한다.

사업 운영에는 전국 각지의 창업 보육 역량을 갖춘 119개 기관이 참여한다. 중기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창업 기관을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최종 운영 기관을 선정했다. 각 기관에는 창업가 발굴과 육성을 담당할 책임 멘토도 배치된다.

참가자는 단계별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우선 6만3000여 명이 제출한 창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약 5000명을 선발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도전 의지와 사회적 가치, 아이디어 구체성 등이 평가 요소로 활용된다.

선발되지 못한 참가자에게도 제도권 기회를 제공한다. 탈락자 전원에게 심사 멘토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도권 교육과 컨설팅,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 멘토링도 별도로 마련해 희

망 멘토를 선택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 선발된 5000명은 약 2개월 동안 책임 멘토와 함께 아이템 구체화 과정을 거친다. 멘토링 참여도와 아이디어 고도화 수준,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해 총 11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창업 아이디어의 성장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다양한 창업 지원 자원을 연계해 예비 창업가의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에서 1기 1차에 합격한 5000명의 합격자와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선발된 5000명의 혁신 주체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무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창업 전 과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 전남진흥원, 지역 게임산업 이끌 인재 양성

실무역량 강화 등 맞춤형 과정 운영...전액 무료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역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26 게임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전액 무료로 운영되며, 게임개발 실무 역량과 생성형 AI 활용 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진흥원은 게임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중심 교육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을 통해 교육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 게임·콘텐츠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까지 이끌어낼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현장 실무 중심에 맞춰 총 5개 과정으로 세분화해 운영된다.

Unity 게임개발 프로젝트 과정, AI 활용 게임 아트 및 게임 리소스 개발 과정, AI 프롬프트 활용능력 자격취득 과정, 콘텐츠 창업 교육, 생성형 AI 교육 등이다.

특히 Unity 게임개발 프로젝트 과정은 게임엔진 활용 능력과 게임 제작 실무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며, AI 활용 게임 아트 및 게임 리소스 개발 과정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게임 그래픽 제작과 콘텐츠 제작 기술을 교육한다.

최근 산업 전반에서 수요가 급증한 AI 프롬프트 활용능력 자격취득 과정은 관련 자격증 취득까지 연계해 교육생들의 직무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 참가자에게는 교육비와 교재비 전액 지원, 실무 프로젝트 수행 기회,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최대 2회), 취업 연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교육 기간 중 수행한 프로젝트 결과물은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어 게임·콘텐츠 분야 진출을 꿈꾸는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목포, 순천, 나주 등 전남 주요 거점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과정별 모집 정원은 15명에서 25명 내외이고 교육 신청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이인용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남지역에서도 게임 개발과 콘텐츠 분야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공급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 (주)TH홀딩스

건설링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